

지자체 무료법률 서비스 ‘속빈강정’

두 달 전 예약해야 상담... 변호사 수 제각각

관련 조례조차 없어... 실적 미미 실효성 의문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들이 주민 법률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관련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률 상담 변호사는 고작 1명만 위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상담예약 대기 인원이 밀려 최소 두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는 각 구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하기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복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실제 각 구청별 법률 상담 실적은 천차만별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동구의 경우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대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달 1회 1시간’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올해 무료 법률 상담실적은 7회에 거쳐 고작 24건에 그치고 있다.

북구도 구청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으나, 실제 상담실 운영 횟수는 ‘매달 2회’ 수준이다.

그나마 광산구는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매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휴닥터’를 운영, 매년 590여명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동구 주민 이모씨(64)는 “좁은 광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조차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한 게 말이 되느냐”며 “매월 한 번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두세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금곡노조광주전남지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피괴법 제정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태일 3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당장 급할 때는 조연조차 구할 곳이 없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도 없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올해 5월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북구도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 나머지 3개 구청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

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올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관련 조례는 준비 중이다”며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 건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어 조정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청연 메디컬 법인 5곳 회생 절차 신청

무리한 사업 확장 탓 유동성 위기

광주지역 최대 한방 의료기관인 청연 메디컬 그룹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연 메디컬 그룹 관계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와 ㈜주와 이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냈다. 지주회사 격인 청연홀딩스와 서연홀딩스, 광개토001 등도 지난 16일 같은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들 법인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인 역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 씨는 앞서 회생 101단독(권민재 판사)에 일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부인과 서광주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정모 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고모 씨도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인베스트먼트와 서연홀딩스는 비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씨가 대표다. 씨와이는 청연한방병원이 설립한 한의약품 제조·유통 업체다.

업계에서는 무리한 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다가 자금난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행보를 넓히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다.

지난 10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청연한방병원과 상무재활센터, 서광주요양병원 등 건물 3개를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인대해 이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대표원장 이씨는 최근 몇 년간 신규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회생 신청 직전에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법인의 회생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광주경찰, 시민청문관 2명 배치

청렴·사건심사 공정성 확보

광주경찰지방청이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시민청문관 제도를 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시민청문관 2명을 채용하고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청문감사 분야에 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청문관은 경찰조직 내부의 부패요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무교육을 통해 경찰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부패 예방을 위해 풍속사건 심의와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시민청문관 77명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해 우선 배치했다. 향후 추가 선발로 전국 총 274개 관서에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김용관 감사계장은 “시민청문관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소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자신이 근무한 학교로 딸 전학시킨 교사 적발

교육청 ‘상피제’ 전수조사서 허위보고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전학시킨 광주지역 고교 교사가 교육 당국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최근 교육 당국에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까지 해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일고 A 교사는 지난 4월 초 광

주 B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다.

이는 교육 당국이 ‘서울 속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신 사건’과 관련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신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A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전학시킨 것은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허위보고

를 한 해당 학교에 대해 행·재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교사가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또 다른 교사는 2018년경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 재학 중, 속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지자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철 기자

북구, 내년 예산 8,091억원 편성

광주 북구는 2021년 예산안을 8,091억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7,102억 원보다 13.9% 증가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4.2% 증가한 8,02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9% 감소한 65억 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

회복지 분야 5,50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1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1억원 ▲환경 분야 208억원 ▲보건 분야 190억원 등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h2>상무지구 (상가) 급매 당진신축원룸</h2>	<h2>장성토지 (급매)</h2>	<h2>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h2>
<p>상무지구 중심 유흥지구 (메가박스 앞)</p> <p>감정 / 시세 → 8억5천</p> <p>▶ 급매가 → 4억2천 (용자3억2천)</p> <p>평수 140평 (6층,7층) (유흥주점,빠,룸마사지) 모드업종 가능, 즉시입주가능,시설비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완지구 원룸 (매매) 룸 13개 (원,홀룸,주인세대1개),월수익 460만 ▶매매가 10억 (용6억3천) 2) 용봉동 원룸 매매 (용봉IC 3분) ▶매매가 6억9천만원 월수익 440만 ▶매매 6억9천만원 3) 화순도곡 무인텔 매매 (룸 34개) ▶매매가 33억 (용29억) 4) 풍암지구 모델 매매 (룸 20개) ▶매매가 21억 (용17억) 5) 임대 6층 (상무지구)80평 임대 보2천 월150만 ▶ (즉시입주가능,시비없음,빠,룸,유흥가능) 6) 임대7층 상무지구60평 임대 보2천 월80만 (즉시입주가능,시비없음,유흥,빠,룸가능) 7) 니주시 금천면 토지 (매매) 남양유업 니주대표대로변 접합 1,970평 ▶매매가 19억 (용12억) 8) 광주 서창동 토지 매매 (197평) ▶매매가 5억5천 9) 평택시 상가 토지 매매 (송탄역1분) 53평 코너(오피 22개 허가완료) 매가 7억 (용3억5천) 10) 평택시전원토지 매매 송탄 진위역 5분 단독동 180평 (주택하기원료) ▶매가 2억5천만 11) 평택시 전원주택 매매 (진위역5분) 토지160평,건물30평 (방3개,화2,웅집실) ▶매가 4억2천만 (용2억) 12) 당진 신축원룸 (월수익750만) ▶매가 12억5천 13) 예산 신축오피스텔 월수익 450만 ▶매가 8억7천만 	<p>광주에서 20분 (도로접)-분양 (주택,주말농장,농막가능,텃밭가능)</p> <p>1) 토지(대지) 100평 → 7,000만 2) 토지 200평(농막6평포함) → 1억4,000만 3) 토지 1,060평 → 6억2,000만(용자3억가능)</p> <p>(전원주택 가능, 창고물류, 사무실, 투자적합)</p> <p>■ 추천 물건</p> <p>1) 장성읍용강리(토지760평)-8천5백 2) 장성이은리토지50평-4천-농막,주말농장가능 3) 장성 아은리100평도로접합-7천-주택가능 4) 아은리토지 200평-1억4천 5) 장성이은리임야 2500평-11억2천 6) 장성읍덕진리1300평-1억6천 7) 장성읍기늘길 국도40미터접합1000평-6억 8) 장성이은리300평도로접-2억1천</p> <p>■ 추천 물건</p> <p>9) 장성상오리주택가능 120평-평당-70만 10) 장성신흥리 공공건물,토지1000평-매가6억 11) 장성황룡리2천평도로접,계획관리-8억 12) 장성황룡리3천평--12억 13) 담양읍금성면 (1470평) -8억 14) 장성삼서금산리3000평,계획관리 -8억 15) 서구서창주택지 270 주거지역 -6억 16) 장성북일면3200평 계획관리 -14억</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 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 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 수익가능)</p> <p>·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경매 물건추천★</p> <p>1) 남구 월산동(상가주택) 토 76평 건150평 ▶감평가 6억6천 → 최저 3억7천 2) 서구 농성동 (상가주택) 토47평,건130평 ▶감평가 5억7천 → 최저 3억9천 3) 동구 대인동 (상가) 토75평,건243평 ▶감평가 12억3천 → 최저 6억6천 4) 남구 월산동 (다가구원룸) 토80평,건300평 ▶감평가 4억9천 → 최저 2억7천7백 5) 광산구신기동(원룸빌딩) 토50평,건126평 ▶감평가 4억6천 → 최저 4억3천 6) 남구 월산동 (상가주택) 토77평,건150평 ▶감평가 6억6천 → 최저 3억7천 7) 동구 수기동(상가) 토43평,건100평 ▶감평가 4억5천5백 → 최저 4억5천5백 8)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94평,건324평 ▶감평가 12억 → 최저 8억5천 9) 북구 임동(숙박시설)토96평,건174평 ▶감평가 6억6천 → 최저 3억7천 10) 서구 화평동 (토지) 토지 116평 ▶감평가 9억2천 → 최저 4억5천5백 11) 남구 월산동(상가주택)토76평,건150평 ▶감평가 6억6천 → 최저 3억7천 12) 북구 오차동 (주택) 토53평,건42평 ▶감평가 1억7천 → 최저 1억2천</p>
<p>010-6670-9800</p>		<p>062-382-5500</p>